

세계인구현황 발간 언론인 간담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0월8일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청소년 인구 12억, 청소년 보건과 권리증진' 을 주제로 '2003년 세계인구현황' 을 발표하였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시백 회장을 대신한 김영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을 촉진,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여 빈곤을 탈피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미래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 청소년 문제와 함께 우리 나라 청소년 문제를 짚어

“세계 청소년 인구가 12억을 넘었다

미래사회 청소년 보건과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천을운 사무총장의 “청소년 인구 12억 청소년 보건과 권리 증진”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루어졌다.

한국의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은일 정보산업고등학교 연극반의 퍼포먼스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서울 미양초등학교 강진아 학생 등이 ‘십대, 우리의 성(性)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청소년의 성문화/성의식 보고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김창규 원장(연이 산부인과)은 이제 이론적인 것에서 벗어나 현실을 파악하고 피임 등 실질적인 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성/생식보건을 주제로 실시한 UN 국제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과 입상 포스터 전시회도 가졌다. PPFK

